

事例発表2－日本側

# みんなが働き、 楽しく暮らす

松藤 聖一(まつふじ せいいち)  
NPO法人こむの事業所



## 1 仕事を得にくい人達に仕事を

- ・ NPO法人こむの事業所は、兵庫県宝塚市(人口 22 万人)において、今年(2010年)1月22日に法人登記をし、4月から知的障害者3人を雇用して事業を開始しました。
- ・ 現在は、宝塚市社会福祉協議会が運営する市民の福祉活動拠点施設の掃除と障害者通所施設の昼食調理を受託しています。
- ・ 来年(2011年)4月から規模の大きい福祉施設の総合的なビルの管理、駐車場の管理と5月以降になりますが、高齢者などへの宅配・配食サービス、ふれあい食堂(コミュニティレストラン)を始めます。
- ・ 来年は、障害者自立支援法に基づく就労継続支援事業A型事業にし、10人の雇用、3年目には20人の雇用を目標にしています。
- ・ そのほか生鮮野菜などを販売する「こむの市場」も開き、いろいろな人達が仕事に就けるよう取り組んでいます。
- ・ こむの事業所の原則は、最低賃金の保障と民間就労の優先、つまり民間企業で働く力を持つ人は、雇用しません。

## 2 阪神淡路大震災から

- ・ 1995年1月17日阪神淡路大震災では、宝塚市民218人が亡くなり約2万戸が全壊・半壊の被害に遭いました。
- ・ ある企業家が震災救助ボランティアを体験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財団プラザ・コムを設立し、市民による福祉活動の拠点「福祉コミュニティプラザ」を造りました。
- ・ その一角はこれからの福祉コミュニティへのリザーブ用地としてあり、その活用のために宝塚市で福祉活動をする人達による福祉文化研究会を設けました。
- ・ 3年半の研究活動の結果、社会的排除のない地域社会を支える仕組みとして、特に「働く」ことをキーワードの事業を起こすこととしました。
- ・ 障害者をはじめ仕事を得にくい人達の仕事を創出するとともに生活支援も併せて行うこととしました。

### 3 事業を支える3つのキープラスワン

- ・ 民間企業には就労が難しい人達が働き、最低賃金以上を得て自立生活をするためには、補完が必要です。
- ・ 本来は、国の制度とすべきなのかもしれませんが、今はない訳ですから、3つのことを必要としています。
- ・ まず寄付や助成など企業や個人の経済的支援です。こむの事業所の拠点施設は、財団法人プラザ・コムが建築工事をしており、来年4月に完成後無償でNPO法人こむの事業所に貸付けます。
- ・ 2階建て1,700㎡の施設には、厨房、レストラン、売店、工房、教室、トレーニングルーム、成年後見センター等の事務所に加えて一時的使用のための住居が3戸あります。
- ・ 財団は、施設以外の運営費は提供しないルールなので、特に今年度の運営費赤字約600万円は、無利子、無担保、保証なしで3年間お借りし、その後3年間で分割して返済する条件で事業に賛同いただく個人に呼びかけ、627万円が集まりました。
- ・ その他公的私的助成金もいただいています。
- ・ もう一つは、ボランティアのサポートです。2人ではこなしきれない事務の支援、イベントの支援、特にこれからは専門的な能力を提供いただくことを考えています。
- ・ 3つ目は公的な仕事の受注です。事業を安定的に継続していくためには欠かせません。
- ・ これらのサポートに加えて重視しているのは、仕事のありかたの変革です。
- ・ 福祉コミュニティプラザ全体の駐車場管理の準備をしていますが、当初は全自動の機会管理が予定されていました。それを人的管理に戻して障害者の仕事と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 4 社会的課題を突き詰めるとそこには社会起業

- ・ 個人的な出発点は、宝塚市の障害者施策・計画で出来なかった宿題を今年3月の定年退職後の仕事として手がけることに。
- ・ 1991年に描いた知的障害者のニーズ体系で出来なかった就労の場づくりが課題として残りました。
- ・ 福祉文化研究会の結論もソーシャルファームを作ろうという結論であり、研究会のメンバーが共有する社会的課題(ソーシャルアジェンダ)に
- ・ 社会が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としてコミュニティが認識すれば、解決するための社会起業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を実感しています。
- ・ イベントでアルバイトをしてくれた不登校やひきこもりの生徒・青年が社会との関係を回復するてがかりにもなっています。

## プロフィール

**松藤聖一**(まつふじ せいいち)

1949年福岡県に生まれる。

### 経 歴

大学卒業後(株)ダスキンに勤務後

1974年宝塚市役所勤務。福祉部門、企画部門、環境部門などを経て

2010年3月定年退職、NPO法人こむの事業所を立ち上げ代表に就任。

現在、神戸学院大学、龍谷大学非常勤講師(福祉行財政と福祉計画)を兼る。

宝塚市役所在職中に、長寿社会福祉計画、高齢者保健福祉計画、障害者計画、児童育成計画、健康長寿のまちづくり基本計画策定等に従事したほか、兵庫県地域安心拠点構想策定委員、大阪人間科学大学非常勤講師(地域福祉計画論)、厚生労働省委託研究「障害者計画のあり方研究会」委員など務める。

### 著 書

「わがまちの地域福祉計画づくり」中央法規など

# 다같이 일하고, 즐겁게 산다



마쓰후지 세이지(松藤 聖一)  
NPO 법인코무노사업소

## 1 일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을

- NPO 법인코무노사업소는, 효고현 타카라즈카시(인구 22 만명)에서 금년(2010 년) 1 월 22 일에 법인 등기를 하여 4 월 부터 지적장애자 3 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개시 하였습니다.
- 현재는 타카라즈카시 사회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시민의 복지활동 거점시설의청소와 장애자 통소시설의 중식조리를 수탁받고 있습니다.
- 내년(2011 년) 4 월 부터 큰 규모의복지시설의 종합적인 빌딩 관리, 주차장의관리와 5 월 이후가 되지만, 고령자등에게 택배, 배식서비스, 식당 (커뮤니티레스토랑) 을 시작합니다.
- 내년에는 장애인자립지원법에 기하여 취로계속지원사업 A 형사업으로 해서, 10 인의 고용, 3 년째는 20 인의 고용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그외에도 생선, 야채등을 판매하는 {코무노시장}도 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일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코무노사업소의 원칙은, 최저임금의 보장과 민간취로의 우선, 즉 민간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 2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에서

- 1995 년 1 월 17 일 한신대진재에서는, 타카라즈카 시민 218 명이 사망하고 약 2 만호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 어떤 기업가는 진재구조 불런티어를 체험한 것을 계기로 재단 프러자 컴을 설립해서, 시민에 의한 복지활동의 거점 「복지 커뮤니티 플라자」를 만들었습니다.
- 그 일각은, 앞으로의 복지 커뮤니티의 리저브 용지이고, 그활용을 위해 타카라즈카 시에서 복지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복지문화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 3 년 반의 연구활동의 결과, 사회적 배제가 없는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구조로서, 특히 「일 한다」는 것을 키워드로 사업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 장애자를 비롯하여 일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창출하는 것과 생활지원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3 사업을 지지하는 3 가지의 키 플러스 원

- 민간기업에서는 취로가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고, 최저임금이상을 얻고,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본래는 나라의 제도로써 해야할지 모르나, 지금은 없기 때문에 3 가지의 것이 필요 되고 있습니다.
- 먼저 기부와 조성등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지원입니다. 코무노사업소의 거점 시설은, 재단법인 플라자 컴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4 월에 완성후, 무상으로 NPO 법인 코무노사업소에 대부합니다.
- 2 층건물 1,700 m<sup>2</sup> 시설에는 주방, 레스토랑, 매점, 공방, 교실, 트레이닝룸, 성년후견센터 등의 사무소에 더하여 일시적 사용을 위해 주거가 3 호 있습니다.
- 재단은, 시설이외의 운영비는 제공 안하는 룰(규칙)이므로, 특히 금년도의 운영비적자 약 600 만엔은 무이자, 무담보, 보증없이 3 년간 빌리고, 그후 3 년간 분할해서 갚는 조건으로, 사업에 찬동해 줄 개인에게 부탁하여 627 만엔이 모여졌습니다.
- 그외의 공적 사적 조성금도 받고 있습니다.
- 다른 하나는 볼런티어의 서포트입니다. 둘이서 하지 못하는 사무의 지원, 이벤트의 지원, 특히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능력을 제공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는 공적인 일의 수주입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해가기 위해서는, 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것들의 서포트에 더하여, 중시하고 있는 것은 일에 있어서의 변혁입니다.
- 복지 커뮤니티 플라자 전체의 주차장 관리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당초는 전자동의 기계관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인적관리로 되돌려, 장애자의 일로서 하고 있습니다.

### 4 사회적 과제를 밝혀내는 것과 거기에 있는 사회기업

- 개인적인 출발점은, 타카라즈카 시의 장애인시책, 계획에서 되지 않았던 숙제를 금년 3 월에 정년퇴직 후의 일로서 다루게 되고.
- 1991 년에 그린 지적 장애자의 니즈체계에서 되지 않았던 <취로의 장> 만들기가 과제로서 남았습니다.
- 복지 문화 연구회의 결론도 소설 팜을 만들자는 결론이고, 연구회의

멤버가 공유하는 사회적 과제로서 커뮤니티가 인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 사회기업이 필요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이벤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준, 부등교와 외출않고 집에만 있는 학생, 청년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서로 되고 있습니다.

## 프로필

### 마쓰후지 세이이치(松藤 聖一)

1949년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 출생.

#### 경 력

대학졸업후 (주) 다스킨에 근무후

1974년 다카라즈카시(寶塚市) 관청근무. 복지부문, 기획 부문, 환경부문등을 경과했다.

2010년 3월 정년퇴임, NPO 법인 고무의 사업소를 시작해 대표에게 취임

다카라즈카시(寶塚市)관청 재직중에, 장수사회복지계획, 고령자보건복지계획, 장애인계획, 아동육성계획, 건강장수의 마을조성 기본계획 책정 등에 종사한 것 이외에, 효고현(兵庫縣)지역 안심 거점구상 책정 위원, 오사카(大阪) 인간과학대학비상근강사(지역 복지계획론), 후생 노동성 위탁 연구 「장애인계획의 본연의 자세 연구회」위원등 맡았다.

현재, 고베학원대학(神戸學院大學), 류코쿠대학(龍谷大學) 비상근강사 (복지행정재정과 복지계획)을 겸한다

#### 저 서

「우리도시의 지역복지계획만들기」 중앙법규(中央法規)등